

선우휘 단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Writer Consciousness in Sun Woo-whi's Short Stories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선우휘의 <불꽃>을 중심으로 그의 작가의식을 연구한 것이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우휘의 소설에는 현실도피와 역사의식의 부재가 있다. 둘째, 그는 반공주의에 깊게 영향을 받았다. 셋째, 역사적 각성이 제거된 행동만을 보여준다. 넷째, 냉전 이데올로기에 따른 국가주의에 순응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I. 서론

선우휘는 주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로 인한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작가이다. 문단에서는 선우휘가 극한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과 '휴머니티'를 형상화하는 소설 창작에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집중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1950년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선우휘 문학의 정체성은 기존의 문학이 지니고 있던 다분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일련의 문학적 경향에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을 제시하고, 인간 삶의 모습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제 문제를 드러내면서 독특한 그의 반공문학을 보여준 데 있다. 그의 작품 경향은 <불꽃> 이후에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전쟁체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분단의 고착화 과정인 전쟁 체험을 형상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우휘 문학의 세계관과 현실인식, 역사를 보는 태도, 행동과 저항의 양상 등이 집적되어 있는 <불꽃>을 중심 텍스트로 삼아 선우휘 문학의 성격과 태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현실도피와 역사의식의 부재

<불꽃>의 역사적 배경에는 고현 아버지의 죽음이 비롯된 3.1운동과 그것이 배태된 시대적 공간으로서의 일제 강점시기, 그 후의 해방 그리고 좌우익의 혹독한 대결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3대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설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주인공 고현의 기구한 삶의 역정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다루면서 선우휘는 고현의 사상체계를 보여

준다. 이는 작가 선우휘의 작가의식이기도 하다.

“애기가 났으니 나대로의 생각을 말해 본 게지 일제 시대에도 나는 병정으로 끌려가기까지 나대로 살았네. 8.15 후에도 역시 난 나대로 살아왔네. 이제부터라도 난 나대로 살고 싶으네. 떠들어대 봤자 인간이 산다는 건 별것이 아니니까. 난 나대로 조용히나 살아가자는 게지. 다만 그뿐이야.”[1].

현실에 대한 고현의 방관자적이긴 태도는 적당히 현실에 순응해온 작가 자신의 행적과도 관련된대[2]. 다시 말해 역사의식이 거세된 고현의 의식 속에는 외세에 의해 침탈된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국권회복의 확고한 열망이 아니라 고향과 관조적 세계에 매몰된 상태를 보여준다. 고현을 통해 우리는 지식인의 한 전형인 냉소적이고 체념적이며 몰역사적인 은둔자의 전형을 볼 수 있다.

2. 선우휘의 반공의식

한수영은 선우휘가 “소설가로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강론직필(強論直筆)’의 언론인이자 완고한 ‘반공 이데올로그’로서도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2]이라고 하였다. 선우휘의 <불꽃>에 등장하는 좌익 인물들은 대부분 윤리적인 결함이 있거나 교만과 포악한 청부업자로 그려진다. 현이 만난 김노인은 정치적 윤리적 파탄자인 것이다. 이러한 인물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선우휘는 1980년대 중반까지 <조선일보> 지면에 ‘선우휘 칼럼’을 두고 남한의 진보주의자들을 지진야로 매도하였다[3]. 한마디로 선우휘는 매카시적 담론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독점하고 있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선우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참여불가론을 주창함으로써 부도덕한 권력집단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

지만 그로 인해 반공의식의 이데올로기로 각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저항의 실체와 행동의 양상

그동안 〈불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강조되었던 ‘저항’의 모습은 사실 이상주의자의 충동에 가까운 우발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이유는 진보적 지식인인 고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고현에 있어 아버지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에비 두고 죽은 불효자이며 ‘어미를 청상과부’로 만든 것이기도 하다. 고노인에게서 들어야 했던 ‘네 애비처럼’이라는 모멸 섞인 말은 현의 행동을 통제하였으며 급기야 고노인의 행동방식을 대물림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현은 역사적 각성이 제거된 ‘행동’이 내면화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고현의 행동 양상은 곧 작가가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시각이 투사된 것으로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의 저항과 행동은 고노인의 죽음으로 인해 조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표출되며, 도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허망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고현을 두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역사적 현실과 괴리된 관념의 세계로 빠지면서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각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4]는 평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고현의 행동은 의지적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4. 선우휘의 참여문학 비판

선우휘는 아세아 창간호에 〈현실과 지식인〉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정치적 효능에 있어서 배개만큼한 장편소설이 수십면의 알팍한 선전 팜플릿만 할 수 없고, 실생활에 도움은 분유나 모기약의 설명서에 미치지 못한다. 詩 백편의 선동성은 군중대회의 한마디 구호를 당하지 못한단 말이다.”^[5]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선우휘는 다분히 감정이 섞인 표현을 통해 참여 문학에 하려면 차라리 선전 팜플릿이나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한다. 선우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는 말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의 방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의 과편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김수영에 대해서는 주변의 속물적이고 경향적인 문인들을 너무 의식해서 차원 높은 민족시인으로 빛나지 못했다고 평한다.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 전쟁의 성격이 호치민을 지도자로 한 항불 독립 투쟁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선우휘의 참여문학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즉물적 문학관과 역사관은 한국전쟁 세대의 가치관, 현실관, 사상체계와 맞닿아 있으며, 국가주의를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불가능하였다. 선우휘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어떤 가치 체계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가 있으면 이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분노를 서슴없이 표출하였다. 한마디로 선우휘에게 있어 문학은 일종의 권력이었던 것이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불꽃〉을 중심으로 좌익 성향의 인물들을 편향적으로 다룬 면모를 몇 가지 시각으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선우휘는 〈불꽃〉의 고현이 그랬듯이 역사인식의 부재를 보여준다. 또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당대 문단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행동의 양상은 역사적 성찰을 담보한 진보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현실 순응에 가깝다. 따라서 그는 문학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 권력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 [1] 선우휘, 불꽃, 현대한국문학전집 12권, 신구문화사, 1967.
- [2] 한수영, 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 실천문학, 봄호, 2001.
- [3] 한수영, 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 실천문학, 봄호, 2001.
- [4] 이화진, 1950년대 선우휘 문학에 나타난 현실대응 양상,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 [5] 홍신선 편, 우리문학의 논쟁사, 어문각, 1985.